

# 박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초당적 방미 대표단 추진 합의

### 박병석 의장,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회동

### 청문회개선TF 구성키로...“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주례 회동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 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한 수석은 “의장님 제안으로 실무 논의도 바로 진행될 것”이라며 “바이

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머지 않은 시한 내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 최대한 처리 및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와 관련한 한 수석은 “국회의장께서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청문회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에 따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지만 여야 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 발언에서 박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한 문제, 이에

관련된 인물도 조속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두 번 회의를 했고, 한 번은 본격적인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를 길게 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에서 잘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특별대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에서 열린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안철수 “김종인 만날 수도”...김종인 “安 문제 개입 안해”

###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 대표 제안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얼마 전 범야권 혁신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 드렸으며 “그 시작으로 범야권 플랫폼을 통해 야권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경쟁을 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야권 스스로 내부 혁신을 통해 문재인

정권 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국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 정책적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였다”면서 “이렇게 만든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썩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반동과 퇴행의 무리들은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뒷덜미를 잡아치고 국정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 야권에게 주어진 시대 과제와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이라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적폐청산 운동은 혁신 플랫폼이 구성된다면 중도

확장을 위한 야권 혁신 작업과 함께 양대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혁신비전 경쟁을 위한 플랫폼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보선에서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들고, 내후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야권은 협력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신적폐청산 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야권 연대 플랫폼 등의 논의의 시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은 예산국회 끝나고 나서부터 아닐까 싶다”며 “일단은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먼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의장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 제안과 관련해 “무슨 야권이 연대할 일이 있느냐”며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야권을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 野, 추미애 ‘민주당 동지’ 발언에 “탄핵·경질 사유 충분”

### “공직자도 신분 망각하는 정치과잉시대 도래”

추미애 법무 장관이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민주당 동지’라고 쓴 페이스북 글을 놓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바야흐로 공직자도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를 하는 정치과잉 시대도 래했다”며 “추 장관은 지난 예결위에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정 위원장을 향해 우리는 함께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며 자신을 너그럽게 여겨달라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발언으로 추 장관 자신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아닌, 민주당을 위해 모든 권력

을 이용하는 민주당 당원임을 전 국민 앞에 선언했다”면서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추 장관은 그 자체로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동지란 보통 당 내에서 당원이나 서포를 부르는 호칭”이라며 “근대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불량한 태도로 답변했던 추 장관이, 이를 경고했던 예결위원장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삼권 분립과 공정한 예산심사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하나님을 보며 열을 안다. 현 권력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라고 말하면서, “21대 국회를 만든 유권자와 그 장

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을 염신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이성적 사고로 자신의 본분보다는 야당 의원들과 소음 공해를 넘어 테러 수준의 악다구니 논쟁을 일삼는 막무가내 철없는 장관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우 피곤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음을 아냐”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권력의 조직원으로서 사고하고 속이 뻘이 보이는 정치 섹션으로만 행동하는 자를 여찌 일국의 사법 부처의 수장으로 옹위하고 아직까지도 방치하는 것이냐”며 “대통령께서는 속히 결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 與, 서울시장 보선기획단 가동 “내년 정권재창출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서울시장 보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승리를 다짐했다.

김민석 서울시장 보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주 시위는 던져졌다.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경주를 절박한 책임감으로 시작한다”며 “시민의 삶에는 중대하고 당과 국가에는 절박한 선거”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책임지는 승리의 발판을

만들겠다. 개성과 정책을 갖춘 훌륭한 후보를 키우겠다”며 “경선물과 큰 틀은 중앙당에서, 정책·홍보·조직은 서울기획단에서 맡겠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서울시장위원회장은 “서울과 부산에서 어떤 선거결과를 얻느냐, 우리가 국민들에게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힘든 길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며 “대단히 중차

대한, 의미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 위원장은 “특히 서울 선거는 부동산 문제 등 민생 문제와 직접적 맞닿은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은 선거”라며 “어려운 과정을 돌파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논의와 기획이 이 자리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